

# 광주FC 더 강해진다...브라질 공격수 가브리엘 영입

균형 잡힌 피지컬에 폭발력·원발 슈팅 강점...최전방 공격 자원  
2022년 고교축구 '우승 합작' 유스 출신 문민서·안혁주도 콜업

광주FC가 최전방 공격수로 브라질 출신 가브리엘(22·Gabriel Henrique de Souza de Oliveira)을 영입했다.

182cm·80kg의 체격을 갖춘 가브리엘은 폭발력과 균형 잡힌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하는 플레이로 팀 공격을 이끌 최전방 공격 자원이자.

가브리엘은 볼을 지키는 능력이 좋고 정확한 패스와 뛰어난 드리블로 1대 1상황에서 강점을 보인다.

강력한 원발을 가진 그는 측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도 위협적이며, 사이드 플레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눈길을 끈다.

2021년 브라질 보타포구FR(세리에A)에서 데뷔한 가브리엘은 2022년 포르투갈 CF가넬라스 2010(리가3)로 이적해 리그 7경기에 나서 1골 2도움을 올렸다.

또 강등라운드 6경기에서 2골 1도움을 만들며 팀의 강등을 막았다. 지난 시즌에는 리그 14경기에 출전, 3골 1도움을 기록했고 컵대회에서는 3경기에서 1골 1도움을 만들었다.

"날씨가 춥고 음식과 문화가 달라 신기하고 적응

하고 있다"며 한국의 첫인상을 언급한 가브리엘은 "팀에 오기 전 K리그와 광주FC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광주 축구가 재미있고 박진감 넘쳤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싶다. 이번 동계훈련에서 몸을 끌어올려 팬들 앞에서 멋진 골을 성공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광주는 '유스 출신 듀오'로 젊은 피도 수혈했다.

광주는 광주 U-18 금호고 출신인 문민서(MF·19·단국대)와 안혁주(MF·19·고려대)를 콜업했다.

동갑내기 두 선수는 2022년 금호고의 제23회 백운기 고등축구대회 우승을 합작했으며, 같은 해 열린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고교축구대회 우승까지 '2관왕'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중앙 미드필더인 문민서는 181cm·78kg의 체격을 지녔으며, 볼 키핑 능력이 좋고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흐름을 살리는 날카로운 패스가 장점이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금호고 주장으로 활약했고,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고교축구대회 결승골을 장식하면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단국



광주FC의 새 외국인 선수 가브리엘이 광주 패밀리랜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로 진학한 문민서는 팀의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에도 이바지했다.

문민서는 광주유니폼을 입으면서 광주 U-12부터 U-15, U-18까지 모든 유스팀을 거쳐 프로에 진출한 '광주 1호' 선수가 됐다.

문민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프로에 입단한 지금 이 순간이 감격스럽다. 프로의 마음가짐으로 자

만하지 않고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176cm70kg의 안혁주는 빠른 발을 앞세운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돋보이는 미드필더로 상대 뒷공간 침투와 양발을 이용한 슈팅 능력도 뛰어나다.

금호고 시절 뛰어난 침투 능력을 선보이면서 제23회 백운기 고등축구대회 최우수 공격상을 수상



유스 출신 안혁주(왼쪽)과 문민서.

했고, 지난해 대학 무대에 진출해 양쪽 사이드에서 고려대의 공격을 지원했다.

안혁주는 "광주 유스 출신으로 골뚱뚱던 프로 무대에 발을 디게 돼 영광이고 꿈만 같다.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노력해서 잘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11년 카타르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일본과의 경기에서 슈팅을 하는 손흥민. <KFA 제공>

## 준우승만 4차례... '최연소 골' 손흥민

한국 대표팀 아시안컵 기록 보니

독일 유학 중 만 18세 194일

36승16무15패 '다승 2위'

'최다골'은 이동국 10골

'최다경기' 이영표 16경기

아시아 축구 최강을 가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이 사흘 뒤 12일 개막한다.

한국 축구의 아시안컵 우승 열망은 크다. 1956년 제1회, 1960년 제2회 대회 2연패 뒤 60년이 넘도록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이 포진한 역대 최강의 전력으로 64년 만의 우승 도전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역대 아시안컵 주요 기록을 소개했다.

아시안컵 최다 우승국은 '숙적' 일본으로 4차례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이상 3회)에 이은 4위다.

한국은 아쉽게도 준우승을 4차례나 했다.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통산 전적에서 한국은 67전 36승 16무 15패를 기록 중이다. 다승에서 이란(68전 41승)에 이어 2위다. 다승 3위는 30승의 일본이다.

한국 선수 중 역대 대회 최연소 득점자는 손흥

민(토트넘)이다.

손흥민은 만 18세 194일이던 2011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렸다.

당시 독일 유학 중이던 그가 만약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고등학교 졸업 직전이었다. 고교생 신분으로 A매치에서 골을 넣은 한국 선수는 아직 없다.

최연소 득점 2위와 3위도 한국 축구의 '전설'들이다.

2위는 1980년 대회 말레이시아전에서 득점한 최순호(18세 249일) 수원FC 단장이며, 3위는 1972년 대회 태국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은 차범근(18세 353일) 전 수원 삼성 감독이다.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나이에 아시안컵에서 뽐낸 선수는 차두리 현 대표팀 코치다. 2015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결승 호주전에 출전했을 때가 34세 190일이었다.

차두리는 같은 대회 8강전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 50여미터 질주 끝에 손흥민의 골을 끌어내 아시안컵 최고령 도움 기록도 함께 갖고 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최고령 출전 선수가 바뀔 수 있다. 1989년생인 김태환(울산 HD)이 8강전 이후 그라운드를 밟으면 차두리의 기록을 넘어선다.

최연소 출전 1위는 1988년 대회 이란전에 출전한 김봉수 현 인도네시아 대표팀 골키퍼 코치의 18세 7일, 2위는 손흥민의 2011년 대회 바레인전 18세 186일이다.

아시안컵 엔트리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선수는 은퇴한 골키퍼 김용대와 손흥민이다. 김용대는 2000년 대회부터 4회 연속 참가했고, 손흥

민 역시 2011년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4회째 참가하고 있다.

최다 경기 출전 기록은 이영표 해설위원이 가지고 있다. 그는 2000, 2004, 2011년 세 대회를 통해 총 16경기를 뛰었다. 2위는 이동국, 차두리, 이운재의 15경기다.

지금까지 12경기에 출전했던 손흥민이 8강전까지 모두 나서면 이영표를 제치고 최다 출전 1위가 된다.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한국 선수는 이동국이다. 이동국은 2000년 대회 6골에다 2004년 대회 4골을 합쳐 총 10골을 기록했다.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보면 이란의 알리 다에이(14골)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1980년 한 대회에서만 7골을 터뜨린 최순호가 이동국의 뒤를 잇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이 통산 4골로 가장 많다.

헤트트릭은 최순호(1980년 UAE전)와 이동국(2000년 인도네시아전), 두 선수만이 경험했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이 맞붙은 상대는 쿠웨이트다. 1980년 대회 결승전을 포함해 모두 8번 만났다.

약연이 가장 깊은 팀은 단연 이란이다. 1996년 대회부터 2011년 대회까지 5회 연속 맞대결했는데 모두 8강전이었다.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특정 국가와 5회 연속 대결도 흔치 않을뿐더러, 그것도 8강전에서 만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번에도 한국과 이란은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 토트넘 '12월의 골' 손흥민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이 팀 자체 선정 '이달의 골'을 차지했다. 올 시즌 들어 3번째 수상이다.

토트넘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1일 손흥민이 본머스전에 보여준 득점이 12월의 골로 뽑혔다"고 밝혔다.

올 시즌 12골을 터뜨려 EPL 득점 순위에서 도미닉 솔라네(본머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오른 손흥민은 지난해 9, 10월에도 이달의 골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손흥민은 본머스와 2023-2024 EPL 20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26분 골 맛을 봤다.

지오바니 로셀소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왼쪽

으로 세도한 뒤 강력한 원발 슈팅으로 본머스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손흥민이 펼친 날 토트넘은 본머스를 3-1로 꺾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12호 골인 이 골은 구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된 이달의 골 선정 투표에서 46%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토트넘은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열린 6라운드 아스널전(2-2 무승부)에서 득점포를 가동해 올 시즌 처음으로 이달의 골을 차지했다.

이어 10월 크리스탈 팰리스와 10라운드 경기(2-1 승)에서도 원발 마무리로 상대 골문을 열었고, 2개월 연속 이달의 골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연합뉴스

## 류현진, 올해도 '친정 식구'와 몸 만들기

한화 후배들과 일본 오키나와 출국...새 시즌 준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6)이 올해도 변함없이 '친정 식구'들과 새 시즌을 준비한다.

2023시즌을 마치고 귀국했던 류현진은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8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장민재, 남지민, 김기중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다.

내 명은 9일부터 오키나와 현지에서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에 나선다.

이들은 약 2주 동안 컨디션, 체력, 웨이트 트레이닝 등 기초 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화 투수 이태양과 이민우도 오키나와에서 따로 훈련하다가 추후 합류한다.

류현진은 2016년부터 매년 한화 후배들과 오키나와, 제주도, 거제 등에서 비시즌 훈련을 했다.

한화 소속 시절 한술밥을 먹었던 친한 후배 장민재는 매년 '류현진 캠프'에 참가했고, 김민우, 이태양, 김진영 등 많은 후배가 돌아가면서 합동 훈련을 했다. 올해는 장민재의 소개로 남지민, 김기중이 류현진과 함께 훈련하게 됐다. 류현진은 매년 숙박비 등 후배들의 훈련 비용을 책임졌다. 올해도 류현진은 후배들을 위해 사비를 털었다.

올해 해외 훈련은 무적(無籍) 선수로 임한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류현진은 매년 소속 팀이 있는 상태에서 새 시즌을 준비했다.

2019년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이 만료된 뒤 그해 12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기간 4년, 총액 8천만 달러에 도장을 찍고 활기찬 기분으로 오키나와에서 국의 훈련을 했다.

올해 류현진은 처음으로 소속 팀 없이 개인 해외 훈련을 시작했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새 시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오키나와 훈련에서도 행정지에 관한 고민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잔류를 선순위에 놓고 한화 복귀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분위기라면 MLB 구단과 계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MLB FA 시장은 선수들의 몸값이 솟구치는 분위기라 국내 복귀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

류현진의 기량도 MLB 구단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류현진은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후 복귀한 2023시즌 변함없는 기량을 펼쳤다. 11경기에 등판해 3승 3패 평균자책점 3.46의 성적을 올렸다. /연합뉴스

## 스포츠토토 200원 베팅하고 7400만원 수령 '잭팟'

10개 경기결과 모두 맞췄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업체인 스포츠토토에서 37만대 고배당이 터졌다.

9일 스포츠토토코리아에 따르면, 프로토 승부식에서 고배당 적중자가 나왔다.

적중자는 지난 3일부터 발매한 '프로토 승부식 3회차'에서 직접 선정한 10개 대상 경기 결과를 모두 맞췄다. 대상 경기는 국내 프로농구 1경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6경기, 국가대표 축구 1

경기 등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적중자의 각 대상 경기 항목 배당률이 2.54배~4.50배였으며, 배당률 합산 결과는 약 37만배였다고 전했다. 이어 200원을 베팅한 이 적중자가 7400여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발행된 프로토 승부식 37회차에서도 국내의 프로축구 10경기 결과를 모두 맞혀 98만배 배당률을 기록한 적이 있다. 적중자는 1000원을 베팅해 9억8000여만원을 뺐다. /연합뉴스